

各市·道支部長의 새해 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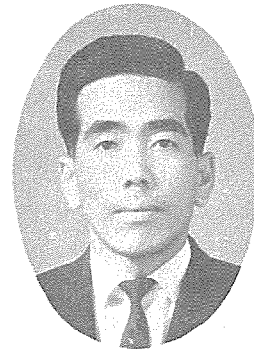
(2)

새해 들어 새로운 覺悟와 意慾으로 맞은 辛亥의 71年, 올해에는 昨年보다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全國 各市道支部長의 構想과 「비전」을 들어 본다. <편집자>

設
問

- ① 새해엔 어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② 본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③ 협회 편집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忠清北道 支部長 尹 榮在



① 건축사의 품위 향상과 실수입의 增大,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相助會(共濟會를 改稱)를 조직하고 相助會納付率을 높임으로서 덤핑을 最大限으로 防止하는 同時에 지나친 低姿勢의 事業活動을 막아 建築士의 品位를 向上시키고 會員 相互間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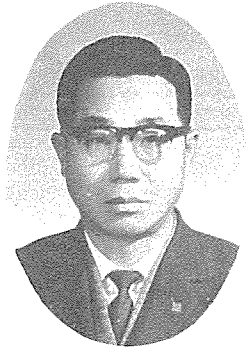
그리고 各會員의 事務所 運營經費 節約等으로 地方에서 個個人이 高價買入 使用하고 있는 製圖用品을 支部에서 直接 生産會社로부터 엽가로 구입하여 各會員에게 原價供給하겠다.

② 지방에서의 建議 및 質疑事項 등을 보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그 동안 회원의 대화의 광장이 벽처럼 막혀 있었으나 최근의 편집계획에 매우 호감이 갑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건축사의 대변지로써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羅北道 支部長 曹 載鉉

신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응업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이 기회를 나누어 주신 회장 이사진 그리고 편집을 담임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① 이곳 회원 25명 가득이나 부족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잘 살아 보자고 공제회도 결성하여 경합도 방지되어 잘 되어 가고 있으며 충고한 준법정신으로 회원의 긍지를 살려 성실성을 다하여 자질향상책을 연구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아가는 지부가 되립니다.

② 우리 고장은 일컬어 8대 도시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한 곳입니다. 구랍 12월 30일 역사적인 호남고속 도로가 개통되어 이제 전북도 비약적인 발전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고속 도로가 이곳 회원으로서는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있으리라 믿어지기도 합니다. 교육도시 깨끗한 도시에 비빔밥이 유명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해서 타도 회원으로 하여금 침해가 일익 가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애로를 타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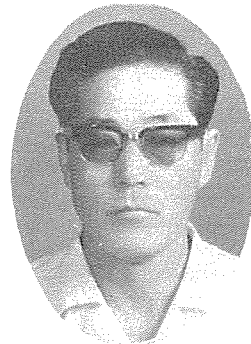
지방 회원 복리 증진과 협회 육성의 일환이라 소납(笑納)하와 두루 통찰하시어 심심한 협조를 바라오며 우리 회원의 업무에 관한 협조는 물론 제반의 강습회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등은 빈곤한 예산으로 중점적 사업전개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 육성 일책으로 소회원지부에 대하여는 정관 5조 8항 활용은 못할진대 대영단으로 부담금 감액의 특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③ 지금까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처럼 발전을 보게된 우리 회지 발간에 주력해 주신 편집 담임하신 분들께 더욱 감사를 드리오며 본지부로서는 일엽의 원고도 보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지부로서 부탁 말씀이라면 우리 회원에 필요한 지금까지 고시된 KS 규격품 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慶尚南道 支部長 白 南辰

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지나간 해의 엉크러진 사소한 감정일랑 깨끗이 씻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임원과 회원간의 화목한 분위기에서 굳게 단결을 해서 서로의 意思를 존중하고 또한 紀綱도 確立해서 他 市道支部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② 無許可 建築物 建立에 처한 저지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남지구엔 특히 馬山, 晉州, 昌寧, 昌原 등지에는 無許可 建物이 성행하고 있는데 中央當部에서의 강력한 対策이 몹씨 아쉽습니다.

會員의 福利向上을 위해서도 시급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③ 회원의 업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記事를 많이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대변지인 「건축사」로 하여금 관계 기관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서도 교량의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건축사」는 회원 기타 비회원, 건축학도, 일반인에게도 애독될 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